

삼성전자, 하이브리드 PDP TV 출시



PDP TV와 LCD TV의 장점을 모은 하이브리드 PDP TV가 나왔다.

삼성전자는 PDP TV의 장점인 자연스러운 화질은 물론 LCD TV의 장점인 선명한 화질과 저소비전력, 그리고 USB 동영상 재생, AllShare 등 다양한 부가기능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PDP TV 5시리즈(모델명:PN50C550G1F)와 4시리즈(모델명:PN42C430A1D, PN50C430A1D)를 출시했다.

삼성전자의 하이브리드 PDP TV는 '클리어 패널'을 채용함으로써 PDP TV의 특징인 자연스러운 화질을 구현한 동시에 화면 전면의 유리막을 없애 이중상을 제거함으로써 LCD TV와 같은 선명한 화질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그 동안 PDP TV 화면 전면의 유리막으로 인해 영상이 시청자의 눈에 보여지기 전에 전면의 유리막을 통과하게 되면서 굴절현상이 생겨 이중상이 나타났으나, 이번 삼성전자의 하이브리드 PDP TV는 이러한 이중상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LCD TV 수준의 선명도를 구현했다.

더불어 PDP의 특징인 자체발광 플라즈마 방식을 유지하면서 미세입자를 다루는 기술인 '나노 크리스탈' 기술을 접목해 전력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표준소비전력 기준으로 42인치 하이브리드 PDP TV 표준소비전력이 40인치 120Hz LCD TV와 동등한 수준을 실현했다.

표준소비전력은 측정 대상이 되는 TV에 일반 TV 방송영

상을 시뮬레이션한 표준영상을 실연하여 단위 시간동안 실제로 사용한 전력을 계측하는 방식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미국에서 소비전력 규제의 표준으로 사용하는 IEC62087 방식을 적용했다.

삼성전자 하이브리드 PDP TV에는 '에코센서' 기술이 채용되어 있어, 실내 조명을 측정해 자동으로 TV 화면의 밝기를 조절함으로써 절전과 동시에 시청자의 눈을 편안하게 해준다.

USB 동영상 재생, AllShare 등 다양한 편의 기능으로 하이브리드 PDP TV로 시청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USB 동영상 재생 기능을 채용해 USB에 있는 풀HD 동영상 파일을 재생해 대화면으로 즐길 수 있으며, 지원 가능한 포맷은 MKV 동영상, DTS 사운드 등 최신 규격을 포함한다.

'AllShare' 기능(5시리즈에 적용)으로 무선 DLNA(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 인증을 받은 PC·휴대폰·카메라 등에 저장된 영화·드라마·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를 무선으로 불러와 하이브리드 PDP TV 대화면으로 만끽할 수 있다.

삼성전자, 폴더로 새롭게 탄생한 '코비F' 출시



삼성전자가 신세대를 겨냥한 감각적인 디자인과 컬러의 '코비F'를 출시한다.

'코비F'는 신세대에 큰 인기를 끌

고 있는 폴더치 '코비'의 폴더 스타일 모델. 코비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스타일리쉬 폴더치폰으로 출시 4개월만에 40만대를 돌파하며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코비F는 기존 코비의 투톤 컬러와 옆면의 사선 라인 등 독특한 디자인 컨셉을 유지하면서 캔디핑크, 라임그린, 블루블랙의 선명한 팝 컬러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매일마다 그 날의 운세를 알려 주는 '투데이 포춘 아이콘' 기능을 탑재했다.

이 기능은 총 31가지의 아이콘과 메시지를 통해 하루의 행운을 알아보는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

휴대폰 전면부는 LED 일루미네이션 효과를 적용하여 코끼리, 고양이, 키스 등 총 40여종의 기본 아이콘은 물론, 자신만의 맞춤 아이콘 제작이 가능해 나만의 개성있는 휴대폰 연출이 가능하다.

신세대들을 겨냥한 다양한 UI 기능도 눈에 띈다.

동화책을 보는 듯한 예쁜 아이콘으로 꾸며진 '일러스트 UI'를 지원하며 단어장과 사전 등을 휴대폰 대기화면으로 설정하여 휴대폰을 열 때마다 실시간으로 학습이 가능한 '학습지원 UI'도 탑재했다.

이외에도 300만 화소 카메라 외에도 셀프 촬영, 지상파 DMB, 블루투스, SOS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코비F를 통해 코비에 이어 국내 신세대 휴대폰 시장에서 확고한 리더십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젊은 삼성 휴대폰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글로벌 마케팅을 꿈꾸는 자, 다 모여라!



“LG전자와 함께 떠나는 글로벌 마케팅 모험”

LG전자홈엔터테인먼트(HE)사업본부

가 실전형 마케팅 인재 확보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어드벤처(GMA : Global Marketing Adventure) 2010'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글로벌 마케팅 어드벤처는 LG전자 HE 사업본부 주관으로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LG전자만의 독특한 마케팅 인재 채용 프로그램이다.

기존 신입사원 선발 전형의 틀을 뛰어 넘는 새로운 개념의 합숙 세미나와 글로벌 인턴십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글로벌 감각과 전략적 사고력을 갖춘 진정한 '실전형 마케팅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박 3일 동안 합숙으로 진행 예정인 마케팅 세미나는, 참가자들에게 LG전자만의 차별화된 마케팅 기법과 글로벌 마케팅 사례를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주제로 하는 팀별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마케팅 전략 기획력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 등을 평가한다.

특히, 홈엔터테인먼트 사업본부장인 강신익 사장과 각 사업부장, 해외 마케팅 담당 팀장들도 세미나 기간 중 현장을 방문하여, 세미나 참가자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경쟁 프리젠테이션 평가를 위한 심사에도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마케팅 세미나를 통해 선발된 인턴들은 LG전자 HE본부 해외 마케팅 부서에 배치되어, 정직원과 동일한 근무 조건에서 약 8주간의 인턴십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며, 인턴십 기간 중 1주간의 해외 법인 방문을 통해 실제 프로젝트 결과물을 글로벌 마케팅 전략으로 제안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합숙 세미나, 글로벌 인턴십, 해외법인 파견 프로젝트 등에 대한 작년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턴 출신 신입사원들의 헌업 적응력이나 업무 역량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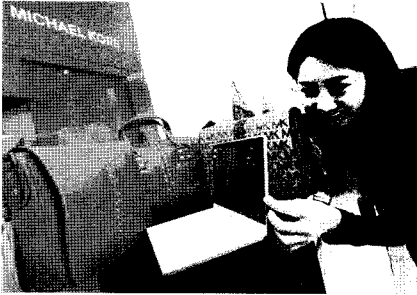
GMA 2010 참가를 위한 지원서 접수는, 지난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LG전자 홈페이지(www.lge.co.kr)의 '인재채용' 코너를 통해 진행 중이며, 2010년 8월 또는 2011년 2월 졸업 예정자는 전공과 관계 없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좀 더 자세한 프로그램 소개를 위해 다음달 7일까지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을 순회하며 '글로벌 마케팅 어드벤처 2010' 캠퍼스 설명회도 개최한다.

LG전자 HE 사업본부 마케팅전략팀장 이관섭 상무는 "작년 처음 시도한 GMA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를 뛰어넘는 우수 인재들을 다수 채용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업

계 최고 수준의 '명품 마케팅 세미나'와 차별화된 글로벌 인턴십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엑스노트 마이클 코어스 에디션' 출시



LG전자가 명품 패션 브랜드 마이클 코어스 (Michael Kors)와 손잡고 '엑스노트 (XNOTE) 마이

클 코어스 에디션'을 30일 선보였다.

'엑스노트 마이클 코어스 에디션'은 LG전자의 초슬림/초경량 노트북인 X300과 마이클 코어스가 디자인한 전용 가방을 결합한 제품이다.

X300은 '얇고 가벼우면서 세련된 노트북'으로 출시 전부터 관심을 집중시킨 제품이다. 여기에 가장 미국적이면서도 시적인 세련미를 강조하는 브랜드인 마이클 코어스가 디자인한 매신저 백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완벽한 스타일을 갖추게 됐다.

메신저 백은 디자이너 마이클 코어스가 직접 디자인한 제품이다. 엑스노트의 주 소비층인 2030세대가 추구하는 감각적인 스타일과 실용성이 잘 반영되었으며, 이태리산 천연 가죽 소재와 마이클 코어스 로고가 새겨진 자카드 원단 소재 2종이다.

LG전자는 '마이클 코어스 에디션' 출시 기념으로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X300을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매신저 백을 무료로 증정한다.

엑스노트와 마이클 코어스의 이번 만남은 2009년 청바지 브랜드 리바이스와 엠씨소프트의 아이온 게임에 이은 세 번째 협력 마케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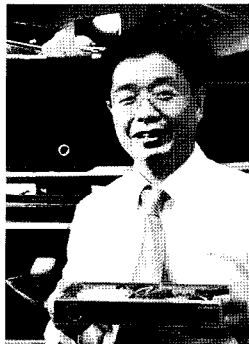
올해 LG전자는 엑스노트 브랜드 아이덴티티(BI: Brand Identity)를 '언제나 놀라운(Always Amazing)'으로 새롭게

바꾸고 기능과 디자인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다.

LG전자 한국지역본부 HE(Home Entertainment) 마케팅 이태권 팀장은 "마이클 코어스와의 공동 작업으로 기존 제품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고급스럽고 세련된 노트북 라이프스타일을 만들 것"이라며, "엑스노트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새롭고 편리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가온미디어, "차세대 하이엔드 유럽시장 진출 가속화"

[이태리 유로파7사와 835만불 규모 HD 디지털 셋톱박스 수주]



[가온미디어 임화섭 대표]

가온미디어는 이탈리아 방송 사업장이자 콘텐츠 공급자인 유로파7사와 835만불 규모의 HD 디지털 셋톱박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금번 수주 물량은 올 6월말까지 공급되며 향후 3년간 60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가온미디어는 이탈리아,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이제 초기 서비스를 시작하는 유럽 방송 사업자 시장을 선점하게 됨에 따라, 향후 유럽지역 차세대 하이엔드 지상파 시장에서 시장 확대와 수익성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게 되었다.

노틸러스호성, 독일 하노버 CeBIT 2010 참가

노틸러스호성이 3월 2일부터 6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된 CeBIT 2010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CeBIT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IT산업 전시회로서 최신 IT트렌드와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노틸러스호성은 순수 독자기술로 국내 최초로 개발한 환류식ATM을 비롯하여 유럽중앙은행 지폐감별 인증을 받은 Full Function ATM, LCD화면 Tilting 기능을 갖춘 Drive-in ATM 등 다



양한 금융자동화기기들과 ATM종합관리솔루션인 Monimanager를 전시하여 참관객들의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세련되고 친환경적인 이미지의 전시부스는 참관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LCD 프로젝터 2기종 시판 안내



동원시스템즈는 5000안시루멘과 6000안시루멘의 밝기를 갖는 LCD 프로젝터

DVM-E100M과 DVM-F100M을 공식 시판합니다.

이들 두 제품은 0.8인치 무기패널 3개를 채용한 3LCD방식의 프로젝터로 장수명 광학 엔진을 탑재하여 내구성이 우수하고 자연스러운 영상을 제공합니다.

고안시의 밝기와 1,000:1의 명암비를 갖춰 대형 회의실, 일반 회의실 및 강의실과 같은 공공 회의장소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밝은 장소에서도 영상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프로젝터를 천장에 고정해 설치해도 램프교체부가 상단에 위치하므로 램프를 쉽게 교체할 수 있어 유지관리도 편리합니다. 또한 공기흐름센서와 기압센서가 흡입한 공기의 양과 필터의 막힘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필터를 교환해주는 AMF(Active Maintenance Filter)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최대 10,00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회의실용 프로젝터답게 기본 표준 렌즈에 장초점 줌

렌즈와 단초점 줌렌즈까지 총 다섯 개의 렌즈를 사용할 수 있어 설치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 400인치까지 투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영상의 4개 코너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코너키스톤기능과 렌즈를 상하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전동렌즈슈프트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터와 스크린의 위치에 따라 발생하는 사다리꼴 모양의 화면을 쉽게 교정할 수 있고, 스크린의 위치에 상관없이 프로젝터를 설치할 수 있어 스크린골프 등의 특수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켓전기, 피부미용 도움되는 종이전지

[전기 10대기술 선정]

종이처럼 가볍고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 화장품 등을 피부 깊숙이 침투시킬 수 있는 종이전지가 10년 안에 실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기연구원(원장 유태환)은 세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첨단 전기기술 중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술을 미래를 바꿀 10대 유망 전기기술로 선정해 13일 발표했다.

이번 유망 전기기술 선정은 과학기술예측 온라인 싱크탱크인 미국 테크캐스트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미래예측기법에 관한 자문을 받아 6개월간 자료 조사와 인터뷰, 논문·특허 등 계량분석과 트렌드 분석, 전문가 의견 조사, 종합분석 등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연구원은 기존 배터리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는 특성 때문에 보청기 등 사용 시간이 긴 데 사용하거나 전기자동차 주행거리를 2배 이상 늘릴 수 있는 금속-공기 배터리, 종이처럼 얇아 구부릴 수도 있고 화학물질과 생체를 효율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화장품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페이퍼 배터리 등을 뽑았다. 또 진동이나 소리, 전자파, 체열, 중력 등으로도 소량의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 휴대전화나 MP3플레이어 같은 전자기기를 배터리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마이크로 발전을 10대 뉴스 중 하나로 꼽았다.

이 밖에도 투명 태양전지, 무선 전력 전송, 분산전원, 직류

전원망, 전기자동차, 유연 투명전극, 무방열 LED가 10대 첨단 전기기술로 선정됐다.

이홍식 연구정책실장은 “전기에너지는 생산·수송·저장·이용 4단계로 분류되는데 이번에 선정한 10대 기술은 네 단계 모두에 분포돼 있으며 공급자가 아닌 사용자 입장에서 유망한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루콤, 설립 창사 20주년

블루콤은 창사 20주년을 맞이하여 인간중심 경영, 인재양성 경영, 기술력 경영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참여 경영의 가치 아래 전 임직원 모두 블루콤과 고객을 위해 최선이 아닌 최고만을 고집할 것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는 근거리 무선 통신기술인 휴대용 블루투스헤드셋을 자체개발, 납품하여 세계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였으며, 2007년 현재 후속 모델의 개발, 납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듭되는 연구개발과 생산설비에 적극 투자하여 IT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리 매김할 것입니다.

2008년부터 개발해온 블루콤만에 자랑 블루투스를 개발하여 양산 및 ODM 으로 LG, 삼성 꾸준히 생산 하고 있습니다.

삼성SDI, SB리모티브와 S&T모터스, 전기이륜차용 리튬이온배터리 공급 MOU 체결

S&T모터스는 23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 기흥 SB리모티브 본사에서 S&T모터스 김택권 대표이사 사장과 SB리모티브 박영우 대표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전기이륜차용 리튬이온배터리(Lithium-ion Battery)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양사는 전기이륜차 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교류 협력, 시장 개척 및 정부환경, 보호 방침에 공동 대응, 전기이륜차 백만대 상당의 리튬이온배터리 물량에 대해 양사간 생산판매를 목표로 협력 전략적 협력관계 지속유지 등에 대한 양해각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라 S&T모터스는 전기이륜차의 핵심부품인 배터리

를 SB리모티브, 구동모터를 S&T대우에서 각각 공급받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륜차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S&T모터스는 지난해 10월 지식경제부 산하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의 고출력 50cc급 전기이륜차 개발과제의 주관사로 선정되면서 모터개발 분야의 S&T대우, 배터리 개발분야의 SB리모티브 등 7개 컨소시엄 기업과 이미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해 왔다.

SB리모티브는 친환경에너지 최고기업 삼성SDI와 세계 최고의 자동차 전장 기업인 독일의 보쉬(Bosch)의 합작사로 친환경 자동차용 리튬이온전지 개발, 제조, 판매를 위해 지난 2008년 9월 설립되었다.

설립된 지 일년 반 밖에 되지 않은 SB리모티브는 삼성SDI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2차전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2009년 8월 세계적인 자동차메이커 BMW 사(社)에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전지를 단독 공급하기로 한데 이어 2009년 12월에는 세계적인 자동차 전장업체 델파이사(社)의 하이브리드 상용차용 전지 단독 공급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SB리모티브 박영우 대표는 “이번 S&T모터스와의 MOU 체결을 통해 xEV(HEV, EV) 시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인 전기오토바이 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선점해 전기이륜차용 리튬이온전지 시장에서도 세계 최고 기업의 경쟁력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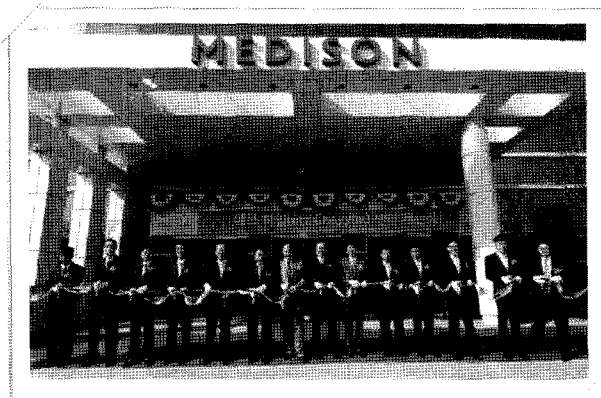
S&T모터스 김택권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S&T모터스의 차체기술력과 계열사인 S&T대우의 모터 기술력, 그리고 SB리모티브의 배터리 기술력이 융합된 친환경 전기 이륜차 생산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게 되었다”며 “국내시장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유럽, 북미 등 글로벌 전기이륜차 시장의 강자로 부상할 기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8년 특허청에서 발표한 자료와 2009년 전세계 전기이륜차 시장 조사 자료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를 채용한 전기이륜차 시장은 2010년 3만대에서 2015년 550만대로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전기이륜차용 리튬이온배터리

리 시장도 2010년 3천만달러에서 2015년 27억 5천만달러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메디슨. 국내외 의료 산업의 기술 허브. '에프하임 센터' 개관

글로벌 종합 의료기기 기업 (주)메디슨이 3월 16일 에프하임(Etz Chayyim) 센터를 개관했다.



메디슨 서울사무소 로비층과 지하 1층에 새롭게 조성된 에프하임 센터는 의료 관련 학회 유치 및 의료 세미나 대관을 통해 국내 및 아시아 의료산업의 기술 허브센터로 한국 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한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메디슨은 에프하임 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한국 의료기기 산업의 리더로 그 책임과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히브리어로 "생명 나무"를 뜻하는 에프하임은 성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히브리어로 영생과 모든 지혜와 지식의 총체를 표현하는 나무이다. 에프하임 센터는 80석 규모의 세미나룸, 제품전시를 위한 소룸, 240석의 컨퍼런스홀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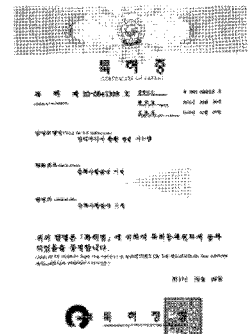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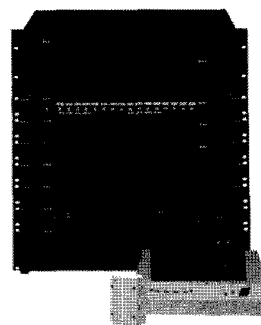
TEXAS INSTRUMENTS KOREA, ECG/EEG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완전 통합 아날로그 프론트 엔드 출시

TI 코리아 (대표이사 김재진, www.ti.com/ww/kr) 2010년 3월 23일 - TI는 휴대형 및 하이-엔드 심전도(ECG,

electrocardiogram) 및 뇌 전 도 (EEG, electroencephalogram) 장비뿐만 아니라 환자 모니터링 및 컨슈머 의료용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완전 통합 아날로그 프론트 엔드(AFE, analog front end) 제품군의 첫 번째 디바이스를 출시했다. 8채널, 24비트 ADS1298은 채널당 1mW의 전력 효율을 제공하여 디스크리트 구현 방식에 비해 최대 95%까지 부품 수를 줄이고 전력소모를 낮춰줌으로써 고객들이 진단의 정확도를 최고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TI 고성능 아날로그 사업부의 아트 조지(Art George) 선임 부사장은 "지금까지 높은 전력 소모와 대량 설계는 ECG 및 EEG 장비의 휴대성을 제한해 왔다."며 "ADS1298의 저 전력소모와 고집적 특성을 통해 제조업체는 휴대가 가능하고 콤팩트 하면서도 저렴한 장비를 개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의사들은 보다 정확한 임상 데이터를 위해 장기간 바이탈 파라미터를 모니터링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이 간편하고 착용해도 안보이거나 착용이 용이한 기기를 통해 환자의 편의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터엠, ITN System 제품특허 획득



인터엠은 지난 2005년 9월 30일 '멀티미디어 통합 방송 시스템' 1건의 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이로 2010년 2월 2일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특허등록이 완료되었다.

이 기술은 현재 시판중인 제품 ITN SYSTEM에 적용되어 있다.